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How to Save the World with a Chicken and an Egg

가제 : 닭과 달걀로 세상을 구하는 방법

저자 : Emma Shevah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1년 5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환경 소설



**\*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함께 오늘 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도 재치 있는 상상력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소녀 아이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동물들의 마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어했다. 한편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년 나다니엘은 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에 엄청나게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이 세상과 동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아이비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그들의 마음을 읽어 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동물들이 다가와 그녀를 뺨히 바라 볼 때 동물들이 먹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비는 정말로 그들과 같은 뇌를 가진 것처럼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어떤 특정 동물에게 방의된 것처럼 그 동물의 마음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신나고 신기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때때로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 또한 의미했다.

사실 아이비 스스로조차 자신에게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잘 알지 못했다. 다만 아이비는 자기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처음 동물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아이비는 스스로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나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 한 오리는 오리의 한 종인 '인디언 러너'로 긴 목을 가지고 있었고 날개는 있어도 날지는 못하는 오리였다. 아이비가 바라 보고 있던 오리는 '폴리'라는 이름을 가진 오리로 아이비의 가족이 키우고 있던 반려 오리였다. 어느 날 아이비는 먹이를 먹고 있던 폴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때 폴리 역시 고개를 들더니 아이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이비는 순간 사물들의 테두리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 순간 아이비는 폴리와 완전히 정신이 연결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후 아이비는 다른 동물들과도 똑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아이비는 달팽이와도 정신을 연결할 수 있

었다. 결국 아이비는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충격에 빠졌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비는 오리 혹은 다른 동물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아이비는 세상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비는 겨우 열 두 살 소녀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학교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물들에게는 아이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비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피곤한 꿀벌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설탕물을 먹였고 배고픈 새들을 위한 씨앗들을 거리에 남겨 두었고 비 오는 밤이면 장갑을 끼고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하지만 아이비는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서 산호와 바다, 숲, 공기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앉아서만 지켜볼 수가 없었다.

한편 나다니엘은 찰스 삼촌이 준 돈 덕분에 해로우에 있는 기숙학교를 떠나 엄마가 있는 집에서 여름 방학 첫 2주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낯선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네 살 때 엄마와 헤어져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소년이었고 이번 여름 방학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익숙한 할머니의 집에서 편히 지내고만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그는 엄마에게 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다니엘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나다니엘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에 가빠 차마 마지막 말을 다 잊지 못했다. 나다니엘은 엄마가 왜 인도에 살았는지 왜 자신을 직접 돌보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결국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장례식이 끝난 후 나다니엘은 삼촌이 전해준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엄마가 사는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나다니엘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아이로 모든 동물들의 해부학적 구조 및 습성은 물론 현재 동물들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줄줄 꿰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답답한 점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것은 아이비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아이비와 나다니엘은 영국의 차가운 해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몸집을 가진 희귀 종 거북이가 알을 낳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아이비와 나다니엘은 서로의 목표와 관심사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동물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한다. 이들은 과연 함께 힘을 모아 어른들도 차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까?

#### <저자 소개>

저자는 아일랜드, 태국 혼혈 태생으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라마 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비 오는 날 런던을 즐기며 글을 쓰고 있으며 아이들을 기르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IF THESE WINGS COULD FLY

가제 : 우리가 날 수 있다면

저자 : Kyrie McCauley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1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가장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발휘하는 조용한 힘에 관한 심도 높은 이야기"- 『The Female of the Species』의 저자, 민디 맥기니스

"가정 폭력에 대한 고통스럽고 진솔하며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강력한 이야기"- 『Twelve Steps to Normal』의 저자 파라 펜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판권 계약 완료

수만 마리의 검은 까마귀들이 모여드는 펜실베이니아 주 오번, 이곳에 살고 있는 레이턴 반스는 다른 이웃 사람들과는 달리 이 까마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레이턴에게는 까마귀 말고도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턴에게는 부서진 물건들을 고치는 일이 이제는 별일도 아니었다. 레이턴의 아빠는 화가 나 이성을 잃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부수는 끔찍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일곱 살인 레이턴은 곧 대학 입학 앞두고 있었지만 전혀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레이턴은 과연 자신의 삶을 찾아 갈 수 있을까? 가정 폭력이라는 어두운 상황 안에서도 풋풋한 첫 사랑과 두 명의 여동생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 여성 청소년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폭풍이 몰려와 바깥 상황이 험악해지면 레이턴의 여동생들인 주니퍼와 캠벨은 곧장 레이턴의 방으로 들어와 품 속에 안겼다. 하지만 동생들이 레이턴에게 온 이유는 단지 폭풍이나 번개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다. 레이턴과 어린 동생들은 마치 폭풍 전야에나 느껴지는 불안을 이미 익숙히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최대 볼륨에 맞춰진 록 음악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캠벨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걱정하며 레이턴을 바라보았다. 레이턴 역시 상처 받고 다친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며 동생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서 똑 같은 공포를 읽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들은 의젓하게 침착함을 유지 하기 위해 애썼고 레이턴은 이가 아플만큼 이를 악 다물고 천천히 노래 소리가 들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레이턴의 아빠는 부엌에 있었고 레이턴은 고개를 숙여 간신히 냉장고 위에 양전히 놓여 있는 총을 보고 안도했다. 아빠는 레이턴에게 집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언젠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둔 것이라고 말했지만 레이턴은 언젠가 아빠가 도둑이 아닌 자신들에게 그 총을 겨누게 될까 봐 두려웠다. 얼마 후 레이턴은 아빠가 격분해 엄마를 이리저리 밀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서둘러

동생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기 선은 이미 아빠가 다 뽑아 놓은 상태였고 결국 레이턴은 동생들을 지붕 위로 피신 시킨 다음 마당으로 뛰어 내렸다. 레이턴은 최대한 아빠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마당의 그늘 속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 도로에는 오직 레이턴네 집뿐이었고 사방에는 수 십 마리의 까마귀만이 가득했다. 레이턴은 그나마 집과 가장 가까운 슈타이그씨네 농가로 달려가 집 뒷마당을 훑쳐보았다. 슈타이그 씨는 오랜 이웃으로 아빠와 친한 사이였고 여자는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이득이 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레이턴은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집 아래층과 위층의 불이 꺼졌다 켜지 다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동생들과 엄마가 걱정 되는 마음에 공포에 휩싸여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분노에 가득찬 얼굴로 레이턴을 노려 보았고 레이턴은 아빠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고 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아빠는 그제서야 방으로 들어가더니 음악을 꺼버렸고 거짓말처럼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는 레이턴에게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생필품과 지갑을 챙겨 자신의 트럭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의 트럭 소리가 들렸을 때 레이턴은 재빨리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달려갔다. 레이턴은 최소한 아빠에게 자신과 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들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아빠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 할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빠는 엄마에게 화해의 선물로 줄 꽃다발을 가지고 왔다. 레이턴이 보기에 들은 잠시 평화로운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레이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서운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레이턴의 아빠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때만 아니면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턴은 이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를 함부로 비난 할 수도 없었다. 엄마에게는 아빠와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누렸던 과거가 있었고 또한 엄마는 언제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레이턴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남자친구 리암과 필요할 때는 어떤 도움이든 아끼지 않는 소피아가 있었다. 하지만 레이턴은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야만 한다. 레이턴은 다른 가족들을 아빠와 남겨 두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다. 레이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레이턴과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까마귀 떼’, ‘폭풍’과 같은 상징적인 소재들을 사용해 ‘가정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키리 맥컬리 (Kyrie McCauley)는 항상 이야기꾼으로 살아왔으며 식당 종업원, 아이 돌보미, 한 밴드의 가수, 집회 주최자, ACLU 인턴이자 어머니, 작가로 살아왔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사회 정책 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고양이를 포함한 가족들과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살고 있다.